광주 U대회 '8년 소송' 마무리…레거시 사업 본격화되나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 83억 확정…조직위 청산 돌입
광주시-문체부, 잔여 재산 421억 배분·활용 방안 갈등 예고
광주시 280억 확보 예상…지역 체육발전 사업 활용 등 고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이 8년 만에 마무리되면서 장기표류하던 U대회 레거시(유산)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20억원대에 이르는 U대회 잔여재산 분배를 놓고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간 갈등이 예고돼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화정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광주시, 조직위, 광주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사용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이 된 선수촌 사용료는 83억원(이자 포함 88억 9000만원)으로 확정됐다.

2014년 12월 제기된 소송에서 선수촌으로 활용된 아파트 임대료로 조합은 467억원, 광주시는 23억원을 주장해왔다. 아파트 사용 기간, 지급 대상, 이자 비용 산출 방식의 차이가 컸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U대회 잔여재산 청산 작업에 나선다. 조직위에는 광주시 5급과 6급 공무원 1명씩 파견됐으며, 잔여재산 청산 작업 등이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2010년부터 광주U대회 개최 및 운영에 사용되고 남은 잔여재산은 이자 28억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421억원 정도이며, 광주은행에 예치돼 있다. 광주시는 잔여재산 가운데 수입 기여율(국비 비율 33%)에 따라 문체부와 협상을 거쳐 배분한 뒤 남은 280억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단 U대회 레거시(유산) 사업비로 활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회가 끝난 지 7년도 넘은 탓에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지역 체육발전 등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아파트. 〈광주일보 자료 사진〉

앞서 2013년 당시 광주U대회 조직위는 2015년 대회 개최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광주레거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반도핑 교육교재 개발, 차세대 스포츠 기자단 육성, 차세대 여성 스포츠 리더 육성, 유엔·광주유니버시아드 남북단일팀 구성 등 4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은 대회 개최와 함께 무산됐으며, 나머지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또 대회 폐막 이후 광주 유니버시아드 재단 설립 등도 검토됐으나 없던 일이 됐다.

레거시 사업은 대회 수익금을 활용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발전과 유니버시아드 정신 고양, 전 세계 대학스포츠의 발전 등을 '지속가능한 유산'으로 남기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다.

반도핑 교육교재 개발은 전 세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도핑(Anti-doping)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하는 사업이며, 차세대 스포츠 기자단 육성은 대학생이 스포츠전문기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스포츠언론협회(AIPS) 등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여성 스포츠 리더 육성 사업은 젊은 여성지도자를 상대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끌어 올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여성리더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와 배분율이 확정되면 의미있는 활용 방안을 폭 넓게 검토하고 조직위 청산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드론으로 만나는 학익진·미디어아트의 판옥선

명량대첩축제, 첨단 ICT로 만난다

'미디어 해전' 재현 첫 선…30일 개막식 등 야간 진행

전남도가 오는 30일 개막하는 2022년 명량대첩축제에서 당시의 해전 장면을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로 재현해내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명량대첩축제는 코로나19 때문에 2년만에 진도·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울돌목 페스타, 명량 빛을 품다'라는 주제로 10월 2일까지 3일간 펼쳐진다. 명량대첩은 1597년 9월 16일 전라도 어민과 열세한 조선수군이 울돌목에서 일본 수군을 크게 물리친 세계사에서 빛나는 해전이다.

2008년부터 13회째 개최한 명량대첩축제는 출정식, 해전재현 등 대표 프로그램이 큰 변화 없이 정체됐다는 지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축제의 메인인 개막식을 야간에 개최하고,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미디어로 해상전투를 재현할 계획이다.

개막식은 '범내려온다'로 잘 알려진 이날치 밴드의 단독 공연을 시작으로 연화(불꽃장치)를 정착한 300여 대의 드론으로 당시 전투에서 활용한 일자진을 펼쳐 하늘에서 해상전투의 모습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개막식에 앞서 영화 '명량'으로 1761만 관객을 동원, 역대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최근 개봉한 영화 '한산'(용의 출연)을 제작한 김한민 감독이 '명량'을 주제로 특별 초청강연을 한다.

축제장에는 아트놈(본명 강현하) 작가가 새롭게 제작하는 인스톨레이션(명량 설치작품)을 전시하고, 이순신 동상과 판옥선에 조명과 라이트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를 구현해 야간에 특색있고, 감동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남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총연출을 맡았던 양정웅 감독을 총감독으로 선임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양정웅 총감독은 "50여 나라 150개 도시의 다양한 축제를 직접 경험해본 결과 주요 프로그램을 야간에 배치해 운영하는 것이 세계적 관광흐름"이라며 "야간 프로그램 위주로 축제를 개최하고 평화와 화합이라는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전달,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농특산물 유통 플랫폼 '남도장터' 설립 속도

도, 가공·유통·수출·관광 전담 재단법인 추진 탄력

전남도가 전남 농특산물 공공형 종합유통 플랫폼으로 비상할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회 심의 결과 출연기관 설립의 정당성이 인정되면서 조건부 동의를 통보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jnmall.kr)가 매년 급성장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의 필요성을 인식, (재)남도장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의 농업이 지속 가능하고 살고 싶은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수출, 관광상품 연계까지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전담조직이 더욱 중요해진데 따른 것이다.

(재)남도장터는 그동안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제기된 안전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과 관리의 어려움,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등 서비스 불안정성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체계적 품질·고객 관리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공공형 플랫폼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 전남의 중소기업 제품 판매, 해외배송, 농어촌 체험관광 연계상품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해 전남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와 유통 혁신을 통해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재)남도장터가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의 초석이 되도록 조례와 정관 제정, 임원 선임, 총회 개최 등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우리나라 대표 공공형 종합유통 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수산물 글로벌 경쟁력 강화

2026년까지 8000억 들여 가공·유통산업 집중 육성

전남도가 2년 연속 전국 수산물 생산액 1위로 명실상부 전국 수산식품 산업의 중심지임을 입증한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8040억원을 들여 가공·유통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부가가치를 높여 어민 소득 증대와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수산가공품 생산량은 29만8000t(22%), 생산액은 1조6773억원(23%)으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수산물 생산량과 생산액 역시 198만t, 3조1002억원으로 전국 생산량(338만t)의 59%, 생산액(7조9583억 원)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최대 수산물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가공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했으나, 최근 김 가공 및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2020년부터는 가공품 생산액에서도 전국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수산물 수출액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3억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8% 증가해 최근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수산물 수출액의 67%를 점유하는 효자품목인 김은 미국·일본 가정 내 김 가공품 수요 증가 및 세계 비건 시장 증가로 2억400만 달러를 수출해 전년(1억6800만 달러) 대비 21.3% 증가했으며 2024년까지 3억 달러 목표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

이같은 성과는 전남도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제1차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규모화, 현대화, 산업화 등 기반 조성을 통한 양적성장에 집중했다. 그 결과 수산가공품 생산액이 2020년 사상 최초로 전국 최다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망고객 확보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MG골프클럽

구 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中

5층 MG문화센터 회원 大 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中

MG금남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